



이슈 거품치약 '덴트리'

"10초 머금고 뱉으면 칫솔질 끝 ... 美 FDA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부터 받아오세요."

장태숙 이숲 대표가 2010년 거품 치약이란 제품을 들고 홍콩 선물박람회 참가했다가 한 바이어로부터 들은 얘기다. "제품은 좋아 보이는데 공인기관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외에서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FDA가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도 몰랐다. 갓 창업해 영어를 잘하는 직원도 없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해외 진출의 꿈을 안고 무작정 미국에 갔다. 현지 동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필요한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아나갔다. 2012년 3월 기어코 FDA 일반의약품(OTC) 승인을 받아냈다.

◆충치 예방과 미백을 동시에 이숲이 FDA 승인까지 받은 거품 치약 '덴트리'는 입안 세균을 죽이고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다. 거품 형태의 치약을 10~20초간 머금고 있다가 뱉으면 칫솔질을 한 듯 깨끗하다. 장 대표는 "상쾌한 느낌을 주는 과일향과 달리 충치, 치은염, 치주염 등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료는 대부분 천연성분을 썼다. 쉐, 천궁, 말린 생강 등 한방 약재에서 추출했다. 충치 예방 기능 때문에 넣은 불소가 유일한 화학

성분이다. 대부분 치약에 들어 있는 연마제도 없다. 화학성분인 연마제는 미세한 가루 형태여서 치아를 긁거나 마모시킨다.

장 대표는 "치아가 약한 사람이 입안이 텁텁하다고 자주 칫솔질을 하면 치아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며 "덴트리는 아무리 많이 써도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쑥·생강 등 천연성분 사용 치은염·치주염 예방 효과 미국 수출위해 협상 진행

◆암 걸린 뒤 창업 결심 시골에서 농부의 아내로 살던 장 대표가 사업에 나선 것은 2007년이다. 유방암에 걸려 죽을 것과 맞바꾸려 계 계기였다. 평생 주부로 살다 죽진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기 치료사 자격증을 딴 뒤 천연 물질로 비누 만드는 방법을 강연한 게 첫 일이었다. 그러다 주부 11명이 모여 직접 천연비누를 제조해 팔기로 하고 영농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조합을 통해 사업하기 어려웠다. 주부들이 제조부터 판매, 영업 등을 하기에 벅했다.

장 대표는 2011년 이숲이란 법인을 세우고 제대로 해보기로 했다.

천연 원료가 얼마나 환경에 좋은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하지만 공산품인 비누는 천연 원료를 썼다 해도 그 효과를 검증할 기관이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치약으로 품목을 바꿨다. 효과 검증은 훨씬 까다로웠지만 제대로 된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안 국내외 판매 본격화" 장 대표는 덴트리의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다. 한 아웃도어 업체와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다. "등산, 캠핑 등 칫솔질하기 어려운 야외 환경에서 거품 치약이 유용할 수 있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행사 때 참석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선 편의점, 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TV 홈쇼핑 방송도 했다. 정부 조달품목으로 등록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주부로서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안재광 기자 anjk@hankyung.com



장태숙 이숲 대표가 천연성분으로 만든 거품치약 '덴트리'의 충치 예방, 미백, 살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피에나-휴대용무선믹서 (031)281-0969 △이숲-덴트리거품치약 (053)584-3320 △에코바스-카멜레온LED조명 (041)589-0306 △아이에스테크놀로지-스마트원격물관리통합솔루션 (032)850-2600

모범여성기업인상 받은 조혜영 위드플라이 대표

"고객 80%가 건설회사 감성과 기획력으로 승부"

"저희같이 조그만 회사가 치열한 광고시장에서 10년 넘게 버틴 것은 스토리가 담긴 감성적인 광고와 기획력으로 차별화했기 때문입니다."

조혜영 위드플라이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사진)는 "(남성보다) 몇 배 더 꼼꼼한 데다 소비자의 감성을 사로잡는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칠기로 소문난 건설업계에 몇 안 되는 건설사 전문 광고회사 대표다. 그는 최근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17주

한국자산신탁, 삼일산업 등 30여개 업체에서 일을 받는다. 최근 한 국자산신탁이 시행한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 광고가 조 대표의 손을 거쳤다. "좋은 입지와 품질을 반영하다 보니 분양가가 다소 높았다"며 "소유의 자부심'이란 콘셉트로 기획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기대보다 좋았다"고 했다.

보통 제품이 나온 뒤 알리는 작업을 하는 소비재와는 달리 건설업은 '지어지기 전(이어서) 실제 가없는 광고'를 해야 하는 게 특징이라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제품(부동산)을 만들기 전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등을 비롯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꿰고 있어야 제대로 된 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며 "끊임없이 시장 상황을 조사하면서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백상건설이 경춘선 인근 별내신도시에서 분양한 '엘리츠'는 기획 단계부터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한 사업"이라며 "광고만 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개발 사업 초기부터 '큰 그림'을 같이 그리기도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천편일률적인 건설사 광고에서 벗어나 획기적이고 참신한 광고를 선보여 업계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여성의 감수성을 살려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광고업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힘찬건설 등 30개사 광고 직접 발로 뛰며 현장 영업

년 기념식에서 모범여성기업인상을 받았다. 여성기업인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인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다.

위드플라이 커뮤니케이션즈는 제일다이렉트 등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조 대표가 2006년 설립한 회사다.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 광고 카피만 쓰다가 창업 후 현장 직접 뛰며 영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임직원 15명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80억원. 회 사명 위드플라이는 '회사와 직원, 광고주가 함께 난다'는 뜻이다. 광고 물량의 80%가량이 건설업종에 몰려 있다. 힘찬건설,



likesmile@hankyung.com

'인재육성형 中소' 희망 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재운)은 다음달 31일까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희망기업 신청을 받는다.

2014년 시작한 이 사업은 전문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정공은 지금까지 250개 기업을 인재육

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올해 200개 기업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200억원) 지원, 종전공 융자잔액 한도(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예외 적용,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5점) 및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1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이다. 이진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우수제품전시관 업체 모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는 15일까지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전시관' 입점 업체를 모집한다.

제품전시관은 홍보용 디지털 정보기기(DID)와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제품 시연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제품전시관 블로그(blog.naver.com/nasa2000)를 개설하는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입점 기업의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입점 기간은 6개월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sanghuni@gsbc.or.kr)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취임 한 달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파격 리더십'

非서울대 출신 인재 등용 잇단 '노조 끌어안기' 행보



지난 5월31일 취임한 서창석 신임 서울대병원장(사진)이 병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산하 기관장에 비(非)서울대 출신 원장을 임명하는 등 관행을 깬 인사로 단행한 데 이어 전임 병원장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납하려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을 확충해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내년 8월까지 응급실 시설을 늘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응급의학과 과장인 서길준 교수가 복지를 찾아 응급실 병상 간격을 넓히고 격리병상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오병희 전 병원장 재임 때 반

납 의사를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서 병원장은 "공공의료는 서울대병원의 운명"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사업단 조직을 원장 직속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서 병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장에 경북대 의대 출신 전상훈 교수를 임명하고 보라매병원장에 40대인 김병관 교수를 임명했다. 서울대병원 산하 기관에 비서울대, 40대 병원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조합을 끌어안는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 서 병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의 지내다 병원장이 됐

다. 이 때문에 낙산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정소용역 직원 등 비정규직 직원과 점심식사를 했다. 노조가 요구해온 어린이집 인력 및 안전요원 확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진료에서도 이진과 다른 병원이 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서 병원장은 "대형 대학병원(3차)이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질환자를 보는 4차 병원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다른 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1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의 룰' 한국경제신문

근로기준법 실무워크샵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하지 마세요!

- ✓ smart hire, soft fire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 ✓ 단배 한가지 피운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인가?
- ✓ 우리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있는가, 누구인가?
- ✓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 ✓ 근로계약금 출납 의무와 배려 의무란 무엇인가?
- ✓ 공정 - 타당한 인사평가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 성희롱 가해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 ✓ 징계권 남용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 근로자가 사표를 던진 후 철회할 수 있는가?
- ✓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요청할 수 있는가?
- ✓ 장년을 청하지 않으면 위법인가?
- ✓ 여성고용 제한은 징계고과인가?
- ✓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있는가?
-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가?
-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인하여 되는 경우는?
- ✓ 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할 경우 상여금 지급해야 하는가?
- ✓ 상여금 삭감규정이 있는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 이밖에 궁금한 실무상 문제들을 해결해드립니다

워크샵 주요내용 :

- 채용/근로계약 실무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 인사처분 실무
- 징계처분 실무
- 근로계약 종료 실무
- 자성고사 퇴출 지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무
- 근로시간/휴일/휴가 실무
- 임금/복지후생 실무
- 통상임금 지침
- 평균임금 실무
- 여성근로자 실무
- 비정규직근로자 실무
- 종합질의응답

교육일정 : 7월 14일(목) ~ 15일(금) / 10:00 ~ 17:00, 2일 12시간
교육장소 : 한국경제신문 3층 한경아카데미 (2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교육비 : 28만원
제공사항 : 김광욱 노무사 홈페이지(www.klcc.co.kr) 1개월 무료 이용권
강의용 특수교재, 중식, 주차 제공
접수문의 : 02) 360-4883, http://ac.hankyung.com

강사 : 김광욱 노무사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장)
제 27회 행정고시 및 1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제철노무관리자 이력님 프로그램 강사들

당신은 꿈을 위해 미쳐봤는가?

〈타임〉 선정 '21세기 혁신가'가 말하는 기업이 정신
"기업가 정신이란 대담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 화제의 신간 ***

세릴 샌드버그, 에덤 그랜트, 세스 고딘,
마이클 델 강력 추천

비즈니스 전문 잡지 〈Entrepreneur〉 선정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책'

왜 지금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가?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옆으로 가보는 힘

다들 된 것만 봐도 귀찮게 할 준비를 하든, 스타트업에 시작할 계획이든,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만들든, 우리는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혹은 이미 성공 이후에 뛰어넘어 어떤 다음 단계로 끝까지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우리 모두가 '기업가(entrepreneur)'로 변모해야 한다.

미쳤다 건 칭찬이다
앤디 코헨이 지음 | 주영환 옮김 | 19,000원